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6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일부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면제 추진
— page 1-2
- 경제구역 투자, 8개월 동안 72% 급증
— page 2
- 경제학자들, 2025년 성장 전망 상향 조정
— page 3-4
- BSP 금리 인하 및 연준 완화적 기조 기대에 페소화 달러 대비 강세
— page 4-5
- 더 많은 기업, 신입 채용 시 AI 기술 선호 — 연구
— page 5-6
- 필리핀 에너지부, 첫 해상풍력 입찰 2025년 4분기로 연기
— page 6-7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

필리핀, 일부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면제 추진

August 29, 2025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필리핀은 미국에 농산물과 기타 일부 상품에 대해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9% 관세에서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 무역 당국자가 목요일 밝혔다.

무역부 차관 앨런 B. 켄티(Alan B. Gepty)는 정부가 농산물, 전자제품, 차량용 타이어, 가방, 항공기 부품 등의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서 열린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워싱턴발(發) 관세 관련 청문회에서 “우리는 미국에 주요하고 보완적인 품목들의 면제를 요청하는 목록을 이미 제출했다. 그중 일부는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조차 되지 않는 품목들”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면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이 미국인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함” 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8월 7일부터 필리핀산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상호관세에서 면제되어야 할 품목 목록을 제출했다” 고 밝혔다.

켄티 차관은 필리핀의 대미 수출 총액 가운데 약 23%가 19% 관세에서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기준으로 미국은 필리핀산 제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수출액은 12억 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5.2% 증가한 수준이다.



The US flag and the word “tariffs”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on April 4, 2025.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필리핀의 대미(對美) 총수출의 약 53%가 반도체와 전자제품이라고 켄티 차관은 밝혔다.

미국은 아직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인 기업들은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현재까지 필리핀산 반도체의 99%는 여전히 면제 대상이어서 문제가 없다” 며 “만약 100%에 관세가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켄티 차관은 대부분의 반도체가 필리핀 내 미국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만약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특히 미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필리핀이 아직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호 무역협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어떠한 합의도 타결되거나 서명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이멜라 ‘아이미’ R. 마르코스 상원의원은 미국과의 어떠한 무역 협정도 국내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상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명백히 필리핀에 불리하고 미국에 극도로 유리한 조건” 이라며 “따라서 이 협정은 상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더욱 큰 이유가 된다” 고 강조했다. [Cont. page 2]

필리핀, 일부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면제 추진

[Cont. from page 1]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워싱턴에서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필리핀이 “미국과 시장을 개방하고, 무관세 체제를 도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요일, 경제기획개발부 로즈마리 G. 에딜론 차관은 미국의 대(對)필리핀 수출 관세가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중기적으로는 소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이 관세로 인해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0.013%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약 7천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무역 전환 과정을 잘 관리한다면, 중기적으로는 무역 전환 효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단기적으로는 기준선 대비 마이너스 0.013%, 즉 약 7천만 달러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에딜론 차관은 필리핀이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관세의 충격이 일부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관세가 무역 교란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수요를 억제하면서, 필리핀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제노 로널드 R. 아베노하 부총재는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활동뿐 아니라 국내 경제 활동도 둔화되면서 현재의 물가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며 “2025년에는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29/694534/philippines-seeking-us-tariff-exemptions-for-selected-exports/>

경제구역 투자, 8개월 동안 72% 급증

August 29,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이 승인한 투자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58억 3천만 페소로 전년 동기(616억 9천만 페소) 대비 72%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투자 유치에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다.

PEZA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승인된 신규 등록 프로젝트는 179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163건)보다 10% 증가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승인된 프로젝트는 40,638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는 총 3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억 7천만 달러보다 71% 높은 수치다.

승인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82건,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46건, 내수 지향 활동 17건, 시설 관련 13건, 경제구역 개발 12건, 물류 프로젝트 5건, 유틸리티 4건이었다.

투자 출처별로는 케이맨제도가 1,314억 페소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한국, 중국, 미국, 네덜란드가 이었다.

한편, 8월 한 달 동안 승인된 투자 규모는 148억 7천만 페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감소했다.

PEZA는 8월 승인된 투자 감소는 올해 해당 달에 이사회 회의가 한 차례만 열렸던 반면, 지난해 같은 달에는 두 차례 열렸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에 승인된 29개 프로젝트는 수출 제조업, IT-BPM, 내수 지향 활동, 경제구역 개발 사업, 시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4건은 총 112억 4천만 페소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big-ticket projects)로, 타를락(Tarlac)에 조성될 두 개의 제조업 경제구역, 다바오시에 건설될 16층 규모의 시설, 사랑가니(Sarangani)주에 제품 라인을 확장하는 철강 제조 공장이 포함된다.

8월 투자 승인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레소 팡가 PEZA 청장은 “진실하고 탄탄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강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29/2468798/ecozone-investments-surge-72-8-months>

경제학자들, 2025년 성장 전망 상향 조정

August 28, 2025 | Bless Aubrey Ogerio | BusinessMirror

2025년 경제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전환되면서, 드라살레대학교(DLSU) 경제학자들이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치를 18bp(기준점) 상향 조정해 5.48%로 제시했다. 다만 이 수치는 여전히 지난해 성장률과 정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번 8월 전망치는 7월의 5.3%에서 개선된 것이지만, 2024년 실제 성장률 5.7%와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2025년 목표치인 6.5~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DLSU 연구팀(헤수스 펠리페, 마리엘 모니카 사울러, 제롬 베데하, 클라렌스 가브리엘 페르난데스)은 보고서에서 “최근 보건 분야 고용, 운송 장비 제조업, 대외 금융 등 일부 지표의 개선이 우리 모형의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올해 3분기 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5.0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4분기에는 6.3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 성장률이 6.15%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이러한 전망치가 향후 몇 달 동안 보다 안정적인 성장 궤적을 보여주며, 2024년 중반의 강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말로 갈수록 둔화세를 보였던 작년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발 전 경 제 학 교 수 인 펠 리 페 는 분 기 별 성 장 륜 차 이 는 미 미 한 수 준 이 라 고 지 적 했 다 . 그는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경제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22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의 전망보다 낮은 성장세를 예측해왔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물가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7월의 2% 전망치보다 낮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1.4%)에서 0.9%로 둔화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밝아진 것과 달리 일부 부문에서는 약세가 예상된다. 특히 자본형성 증가율은 2024년 6.3%에서 2025년 4.16%로 둔화되고, 2026년에는 1.73%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 성장률은 2025년에 2.36%로, 그 다음 해에는 3.31%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동향

수입은 2025년 1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10.3%)에서 연말 두 분기에는 1.35%까지 둔화되며, 연간 평균 4.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은 2025년에 3.91%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4년의 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26년에는 수출 성장률(5.09%)이 수입 성장률(3.47%)을 상회하며 무역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생산 전망

산업 생산 둔화는 서비스업과 농업 부문의 성장세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2025년에 6.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분기에는 8.2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6년에도 7.34%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에 -1.89%로 위축됐던 농업은 2025년에 5.4%, 2026년에 6.68%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 효과 불확실

DLSU 연구팀은 미국이 새로 부과한 대(對)필리핀 수출 관세의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Cont. page 4]



A vibrant morning rainbow stretches over Makati's business district.

경제학자들, 2025년 성장 전망 상향 조정

[Cont. from page 3]

“영향을 평가하려면 몇 달간의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만, 여러 모형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펠리페 교수는 단기적인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필리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 경제”라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태평양 합의 전망(Asia-Pacific Consensus Forecasts)의 8월 보고서를 인용하며,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 전망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0.2%p), 베트남(+0.3%p), 대만(+1%p) 등 일부 국가는 상향 조정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안의 결과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높은 가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즉,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관세 압박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우리의 해석으로는 이번 관세의 목적이 미국과의 지정학적 정렬 여부에 따라 보상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Image credits: Mau Vict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28/economists-adjust-growth-forecast-upward-for-2025/>

BSP 금리 인하 및 연준 완화적 기조 기대에 페소화 달러 대비 강세

August 29, 2025 | A.M.C. Sy with Reuter | BusinessWorld



BW FILE PHOTO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미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목요일 페소화가 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필리핀은행협회 자료에 따르면, 페소화는 달러당 57.12페소로 마감해 전날(57.16페소)보다 4센타보 강세를 기록했다.

이날 페소화는 달러당 57.05페소로 장을 크게 오르며 시작했다. 장중 최고치는 56.93페소였으며, 최저치는 57.17페소였다.

목요일 달러 환전 규모는 19억 달러에서 18억 6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한 트레이더는 전화 인터뷰에서 “BSP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페소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이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BSP는 목요일 기준 역레포 금리를 25bp 인하해 5%로 조정했으며, 이는 지난주 *비즈니스월드* 설문조사에 참여한 20명의 경제학자 모두가 예상한 바와 일치한다. 또한 초과지준예치금리(overnight deposit rate)와 초과대출금리(lending rate)도 각각 25bp 낮아져 각각 4.5%와 5.5%가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이후 세 차례 연속 25bp 인하이며, 2024년 8월 완화 사이클에 들어선 이후 누적 기준으로 총 150bp의 차입 비용을 낮춘 것이다.

리잘상업은행(RCB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미국 연준 관계자들의 완화적 발언으로 목요일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더는 금요일 페소화가 달러당 56.9057.3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리카포트는 5757.2 범위를 예상했다.

한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목요일 달러 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Cont. page 5]

BSP 금리 인하 및 연준 완화적 기조 기대에 페소화 달러 대비 강세

[Cont. from page 4]

미국 달러화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다시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하고 자신에게 충성적인 인물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프랑스 총리가 월요일 갑작스럽게 내달 신임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소수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흐름이다.

연준의 윌리엄스 이사는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9월 16~17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는 향후 경제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전 발표될 핵심 지표는 금요일 예정된 PCE 물가지수(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와 그 다음 주 발표될 월간 고용보고서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내달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89%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누적 55bp(0.55%포인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를 5월 1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달러화에 추가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와 성향의 인사를 연준 의사결정위원회에 지명하려는 시도 역시 단기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쿡 이사가 소송을 제기해 직위를 지키려 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ING의 글로벌 마켓 총괄 크리스 터너는 “단기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저점 근처에 머물러 있으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달러화에 부정적이라고 대부분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후 0.1% 오른 98.22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0.07% 하락한 1.1630달러를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엔화 대비 달러는 0.03% 내린 147.34엔을 기록했다.

한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수석 통상교섭관은 목요일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해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일환으로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계획 세부 내용 발표가 연기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행정적 수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달러화는 역외 거래에서 위안화 대비 0.2% 하락한 7.1360위안으로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anking-finance/2025/08/29/694443/peso-strengthens-vs-dollar-on-bsp-rate-cut-dovish-fed-bets/>

더 많은 기업, 신입 채용 시 AI 기술 선호 — 연구

August 29, 2025 | Jasper Emmanuel Arcala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신입 인재 채용 시 인공지능(AI) 지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잡스트리트(Jobstreet by SEEK)가 보고했습니다.



잡스트리트의 최신 ‘채용, 보상 및 복리후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2%가 구직자의 AI 지식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36%는 AI 지식을 채용에서 “매우 중요한(crucial)” 요소로 간주했으며, 이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거나 다른 자격 요건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 잡스트리트(Jobstreet by SEEK)에 따르면, 필리핀 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신규 채용 시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 page 6]

더 많은 기업, 신입 채용 시 AI 기술 선호 — 연구

[Cont. from page 5]

잡스트리트가 발표한 최신 채용·보상·복리후생 보고서(Hiring, Compensation and Benefits Report)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2%가 구직자의 AI 지식을 긍정적인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6%는 AI 지식을 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이를 주요 고려 사항이거나 다른 자격 요건만큼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잡스트리트는 기업들이 AI 역량을 평가할 때 기술적인 질문을 하거나 지원자의 포트폴리오 속 프로젝트 및 작업 샘플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를 도입해 자동화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필리핀 내 다양한 규모와 산업 부문의 2,000명 이상의 채용 담당자가 참여했다.

잡스트리트 필리핀의 매니징 디렉터인 다나 마자로콘(Dannah Majarocon)은 “이번 시그니처 보고서를 통해 채용 시장의 전망,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과 복리후생을 살펴보고, 특히 AI와 직장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채용 담당자와 인재들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8%가 임금 인상을 실시했으며, 대부분 1~5% 범위였다.

잡스트리트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복리후생 기준을 개선하고 임금 구조를 개발·개편하면서 중대형 기업과의 격차를 좁혀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기업의 53%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너스를 통해 인재 확보 및 유지를 도모했으며, 평균 보너스 규모는 약 4개월 치 급여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은 의료 보험, 건강검진, 정신 건강 지원 등을 복리후생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스트리트는 앞서, 필리핀이 직장 내 DEI 도입에서 동남아시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필리핀 기업의 63%가 DEI 이니셔티브를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29/2468800/more-businesses-favoring-ai-skills-new-hires-study](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29/2468800/more-businesses-favoring-ai-skills-new-hires-study)

필리핀 에너지부, 첫 해상풍력 입찰 2025년 4분기로 연기

August 28,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에너지부(DOE)는 해상풍력에만 전용된 국내 최초의 재생에너지 입찰을 연기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새로운 기준안(TOR)에 담긴 조항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분기로 미루기로 했다.

마일린 카풍콜 에너지부 차관은 당초 3분기에 예정되었던 일정에서 변경하여, 다섯 번째 녹색에너지 입찰(GEA-5)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풍콜 차관은 에너지부가 최근 입찰 초안 TOR(참조 조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포커스 그룹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안된 비가격 기준(non-price criteria)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항만과 송전망의 가용성 등 다양한 요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부가 GEA-5에 비가격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여러 국가들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환경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비가격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가격 기준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ont. page 7]

필리핀 에너지부, 첫 해상풍력 입찰 2025년 4분기로 연기*[Cont. from page 6]*

카뎡쿨 차관은 에너지부가 현재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있지만, 입찰이 압박한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GEA-5의 제안 TOR(참조 조건)에는 프로젝트 설계, 기업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낙찰된 녹색 에너지 요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EA-5에서는 해저에 고정된 고정식(fixed-bottom)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이 기술이 “글로벌 차원에서 입증된 실적, 비용 효율성, 확장성”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밝혔다.

라파엘 로탈라 전 에너지부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해상풍력 부문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빠르면 2028년 또는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전력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뎡쿨 차관은 현재 샤론 가린 장관 체제 하의 에너지부가 이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GEA-5의 목표는 3.3GW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모두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ECCP)가 주최한 에너지 포럼에서 말했다.

다만, DOE의 3.3GW 해상풍력 프로젝트 가동 시점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참조 조건을 최종 확정된 뒤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의될 것입니다.” 라고 카뎡쿨은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중 하나가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정하는 GEAR 가격” 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GEA-5의 경우 입지 특성, 까다로운 설치 요건 및 기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상한선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GEA-4에서는 ERC가 지붕형 태양광의 GEAR 가격을 kWh당 ₱5.68, 지상형 태양광을 ₱4.4832, 수상 태양광을 ₱6.5258, 육상풍력을 ₱6.0859, 통합형 태양광을 ₱5.4028로 승인한 바 있다.

카뎡쿨 차관은 이미 해외 및 국내 기업들이 GEA-5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구체적인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GEA-5에서 낙찰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들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현재까지 에너지부는 약 65GW의 총 용량을 가진 86건의 해상풍력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GEA-5는 정부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2%에서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려는 야심찬 전략의 일환이다.

Source: <https://mb.com.ph/2025/08/28/doe-delays-countrys-first-offshore-wind-auction-to-q4-2025>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RICKY CARANDANG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HEAD OF
EXTERNAL AFFAIRS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GRACE MIRANDILLA-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STRUCTURE
ECONOMIC ESTATES



RUBEN CAMBA
MANAGING DIRECTOR
SOUTHEAST ASIA
ACCORNA
INFRASTRUCTURES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facebook.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https://www.instagram.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https://twitter.com/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linkedin.com/company/Arangkada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